

(사)한국예절문화원

고래를 춤추게 한 칭찬예절

교육자료

2020-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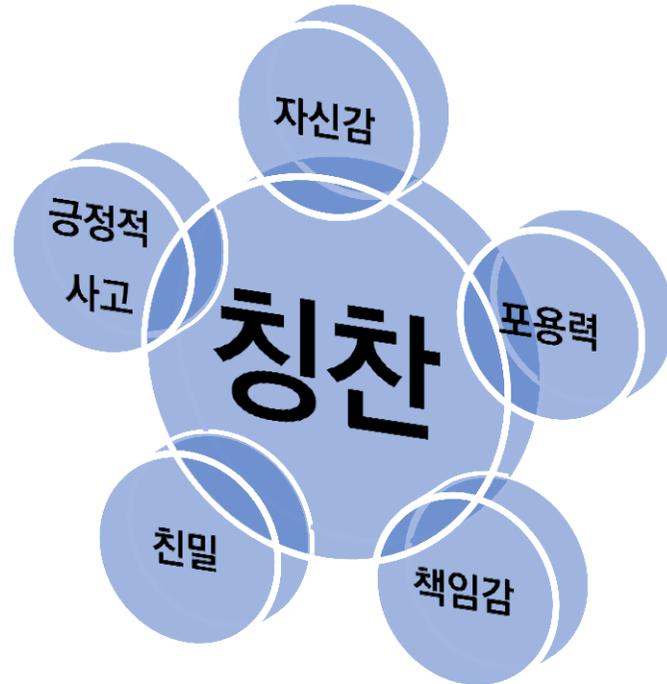
목차

1. 칭찬예절

1. 칭찬예절

● 칭찬

칭찬은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길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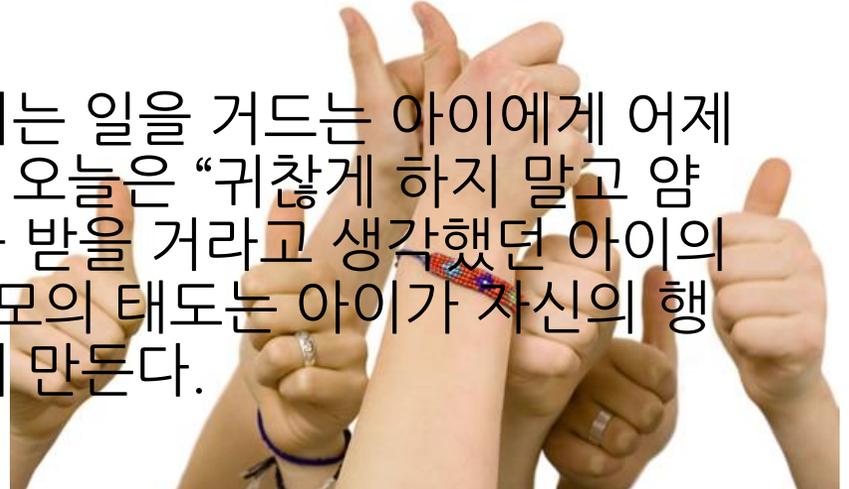


● 올바른 칭찬 방법

- ① **사소한 일도 칭찬한다.** 칭찬은 반드시 뭔가 근사하고 큰일을 해냈을 때 하는 것은 아니다. 밥 잘 먹고, 친구와 잘 어울려 놀고, 깨끗이 세수하고, 장난감을 스스로 치우고 하는 등 아주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진다. 아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데서 칭찬하는 마음이 우러난다.
- ②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막연히 “착하구나” “예쁘구나”라고 한다면 아이는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왜 칭찬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일에 대해 기뻐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려는 노력도 하게 된다.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네가 오늘 장난감 정리를 한 것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로 기쁘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 ③ **행동과정을 칭찬한다.** 아이가 엄마와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결과만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부각시킨다.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아이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은 바로 아이의 노력한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다.



- ④ **평가는 하지 않는다.** ‘참 잘했다’ 식으로 옳고 그름을 엄두에 둔 칭찬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자주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판단기준을 의식해 눈치를 살피게 된다. 장난감을 잘 치운 아이에게는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정말 깨끗해졌는데?”라고 말해준다.
- ⑤ **약점을 장점으로 본다.** 아이의 행동을 ‘버릇없다,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방향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우리 아이는 산만한 아이’라고 단정지어버리면 차분하게 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산만하게 행동하는 것만 눈에 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들면 칭찬할 만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 ⑥ **일관성 없는 칭찬을 한다.** 식탁 차리는 일을 거드는 아이에게 어제는 “엄마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오늘은 “귀찮게 하지 말고 암전히 좀 있어”라고 말한다면?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실망이 클 것이다. 일관되지 못한 부모의 태도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 ⑦ **칭찬과 야단을 동시에 한다.** 예를 들어 “이건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하는 식으로 야단을 치기 위해 말머리를 칭찬으로 꺼낼 경우 아이는 칭찬을 받는 것인지 야단을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칭찬 뒤에는 으레 꾸중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해버려 칭찬의 의미가 사라진다.
- ⑧ **건성으로 하는 칭찬은 좋지 않다.** 아이의 기를 살린다고 무턱대고 칭찬하지는 말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도 성에 차지 않는 일들이 있다. 본인은 너무 그림을 못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 그렸구나” 하고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열등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열심히 그렸구나. 엄마는 네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심을 담지 않고 건성으로 칭찬한다면 아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